

1 개요

삼달본향당본풀이는 성산을 삼달리 본향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서울 황정승 막내아들인 어매장군은 역적으로 몰려 중병이 든 아버지를 위하여 황소의 피를 빼어 먹인 뒤 제주도로 피난하여 당신이 되었다.

2 내용

황서국서 어매장군은 서울 황정승의 세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황정승은 병이 들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스스로 점을 쳤더니 황소의 피를 먹으면 낫는다는 답을 얻었다. 황정승이 백정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역적으로 몰린지라 나라에서 모든 백정을 잡아들여 버려 백정을 구할 수 없었다.

황정승은 세 아들에게 황소의 피를 뽑아달라고 하였으나 첫째와 둘째는 거부하고 막내 어매장군이 그리 하겠다고 하였다. 어매장군은 황소의 목을 참실로 묶고 고함을 쳐서 황소를 기절 시킨 뒤에 피를 뽑아 아버지에게 먹였다. 이렇게 하여 살아난 아버지는 어매장군에게 역적으로 몰려 죽을 테니 피난을 하라고 일렀다. 어매장군은 제주도로 피난하여 삼달리 당신이 되었다.

그 마을 김씨영감이 병이 드니 어매장군이 꿈에 나타나 자신을 제향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였다. 김씨영감이 어매장군을 대우하였더니 과연 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세상 일을 내다보는 능력을 얻게 되어 곧 부자가 되었다.

마을에 심한 흉년이 드니 김씨영감이 주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살려주었다. 나라에서 알고 통정대부 벼슬을 내려주었다. 김씨영감이 죽게 되니 나라에서 신위를 내어주었다. 이리 하여 어매장군 부부와 김씨영감을 당에서 함께 모시게 되었다.

3 특징

당신인 어매장군과 심방인 김씨영감의 내력이 연결되어 있다. 어매장군은 장수의 능력

을 지녔으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린 터라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 당연한 일을 하고도 제주도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영감은 처음으로 어매장군을 신으로 모신 덕에 영험한 심방이 될 수 있었다. 김씨영감은 자신의 능력을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쓴 덕에 벼슬을 받고 어매장군과 함께 당에서 모셔지는 존재가 되었다.

④ 핵심어

황서국서, 어매장군, 서울, 황정승, 세 아들, 황소, 백정, 김씨영감, 통정대부, 흉년

⑤ 원전 서지사항

삼달본향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⑥ 관련 자료